

書 面 答 辯 書

자료번호 소관 : 교통관광과 질의 일시 :
의원 성명 : 김 강 수

(질문 요지)

○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위해

① 관광안내소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② 민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부지 절토로 주차장조성 동의는 없는지?

(답변 내용)

교통관광과장 한 응 범 임 니 다 .

대포동 내물치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대포동 김강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교통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광안내소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광안내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안내소의 시설위치는 대포동 178 - 9번지에 시설되어 있으며
- 건축 면적은 82.5 ㎡ (24.96 평)으로 단층 조적기와로 한식의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건물의 건축은 '88. 8. 22 준공 되었으며, 사업비는 32,000 천원을 투자하였으며
- 주요구조는 42.9 m² 의 홍보전시관과 19.8 m² 규모의 관광 안내실과 다용도실로 되어있습니다.

○ 김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소를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건물내의 공간이 없습니다.

○ 굳이 어떤 용도라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건너편 상가의 기존 매점, 스낵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고, 건물을 활용할 경우 1개의 점포로만 이용되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등을 이유로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어 집니다

두번째로 민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할 의사에 대한 질의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부지는 대포동 796 - 2 번지의 4 필지로 지적은 4,301m² 로 속초시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의 관할기관인 영주지방철도청에 철도부지 매각 협의를 위해 '94. '95 년 2 차례에 걸쳐 매각협의를 개진하였으나, " 장래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예정지로 확보하고있는 보존재산으로 철도를 복원시 본 용지의 사용계획이 불확정 상태에 있어 사용구간의 확정시까지 매각이 불가하며 " "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유상사용승인은 가능하나 철도청의 요구시 이의없이 원상복구 반환 "을 조건으로 회시

된바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규정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받을수 있다 " 는 규정으로 무상사용을 협의하였으나 " 철도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관서로서 무상사용은 불가 " 로 회시된바 있습니다.
- 김 강 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포동 내물치 주민들이 관광안내소 건물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은 불특정 다수인의 형평에 부합되지 않으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철도부지의 주차장조성 관계는 영주철도청에서 회시한바와 같이 부지의 사용계획이 확정될 경우 재협의를 추진하여 향후 속초시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강 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書 面 答 辯 書

자료번호	소관	교통관광과	질의 일시 :
			의원 성명 : 김 민 식

(질문 요지)

- 모노레일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 ① 본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② 본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예산 계획은?

(답변 내용)

교통관광과장 한 응 범 입니다.

- 「설악산 모노레일사업 추진」 관련하여 도문동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설악산 진입로에 모노레일을 설치코자 하는 목적은 설악산 진입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 하고 차량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 지방재정확충및 지역 관광의 대외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도시화, 민주화, 전문화로 급속히변화 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하게 증대되어 가는 주민복지및 지역개발 수요를 자치단체의 기존 행정력, 재정력 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방행정에

경영기법 도입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및 경영 능력과 특히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기초로한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제3섹타」 즉 민관공동출자사업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 '90년 11월 추진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 아울러 '90년 12월 민관공동출자 대상사업 조사 보고 지시가있어 우리 시에서는 모노레일사업이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의 환경보존 및 개선과 교통난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동 사업을 선정 보고하게 되었고,
- 지역주체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92년 4월 1일 속초향토 기업을 설립하여 '92년 7월 모노레일사업시행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무부장관의 내인가를 득하였고 '92년 12월 극심한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기존계획노선을 도로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립공원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자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처 및 문화체육부의 반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 이에, 노선일부를 조정하여 '94년 3월 국립공원기본계획 변경안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94년 9월의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이 이 보류되어 국립공원위원의 현지 초청·설명후 계획서를 보완하여 '95년 3월 사업계획을 재신청 하였으나 회차도로 및 환승주차장 미비를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가 내무부로부터 회시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계획서를 보완하여 '95년 7월 사업안을 내무부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선행이 전제 되게 되었습니다. '95년 4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당초 「기본설계의 공고전」에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사전 환경영향평가 시행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시 6개월 ~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의 용역비가 소요 됨은 물론, 추후 환경영향평가외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제한으로 계획이 무산되었을 시 환경영향평가 소요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경훼손에 대한 환경부 및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타당성 및 환경에 커다란 영향이 없다는 학술적 보고서를 제시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하겠습니다.
- 내무부 실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간과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부의 반응을 타진,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현재 향토기업 자체 예산으로 기존 환경성검토서 작성기관(E&C)에 의뢰하여 연장구간을 포함한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 완료후 본 환경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95년 9월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처간 협의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면 기존 용역안을 활용, 작성하여 기간 및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본사업은 4.5km 노선에 속초시 51%, 향토기업 49%의 비율로 4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 투자비율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2항에 근거한 사항으로 민관공동 출자시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 민간부문이 49%의 비율로 출자하는 경우는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인데, 이는 공동출자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사기업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 그외 투자방법은 공사가 아닌 경우로 출자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비율은 자치단체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을 위한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소요액이 판단되고, 공사형태로 운영 할 것인가, 회사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투자비율은 공원기본계획 변경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당면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 문제 역시 의회 및 향토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사업과 관련한 주요 예산집행 내용으로서 '92년 12월 완료한 「설악산국립공원 교통시설 개선방안」 용역비

4,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94년 4월 향토 기업에서 환경성검토 용역을 수행했고, 앞서 밝혔듯이 연장 연장구간을 포함한 새로운 환경성검토 용역을 향토기업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 본사업의 대상지역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존지역 및 문화재관리 법상의 천연보호구역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시행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사업목적에 대한 불신 및 정부차원의 지원의지 결여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는 열악한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실정을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풍토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 모노레일사업 추진배경 및 환경친화시설인 모노레일의 효용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단체 및 문화재보호 단체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사들을 현지에 초청, 현지 실정을 인식케하는 등 체계적인 이해·설득작업으로 본 사업의 성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속적인 지원을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書 面 答 辯 書

자료번호	소관	교통관광과	질의 일시 :
			의원 성명 : 한 영 환

(질문 요지)

- 설악권 개발과 관련하여 권금성 - 대청봉 - 오색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곤도라 등을 설치운영 한다면 관광객에 각광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관광수입증대, 자연훼손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 ②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애요인과 해결대책은?

(답변 내용)

교통관광과장 한 영 범 입니다.

설악권개발 관련, 설악산 횡단 케이블카 및 곤도라설치 추진에 대해 한 영 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설악산방문객 대부분이 소공원인근 등산코스를 탐방하고 돌아가는 단순한 관광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거리상. 시간상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금성 - 비선대 - 대청봉 - 오색 및 권금성 - 비선대 - 울산바위 - 노학동 콘도단지간의 케이블카 및 곤도라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을 도모한다면 금강산 개방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고, 내재된 설악의 비경을 감상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 인해 내외국 관광객유치 증진 및

관광소득화에 크게 기여하는것임은 물론 다중이용에 의한 등산로 훼손도 방지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설악산 모노레일설치 사업에서도 노출 되다시피 국립공원 설악산 개발에는 많은 제한과 난관이 수반됨을 알수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UNESCO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역 임과 동시에 개발이 제한되는 핵심지역으로서 환경단체 및 중 앙부처의 반대 반응은 불보듯 명확하다 하겠읍니다. 더욱이 기존 도로변을 따라 시설하고자 하는 설악산 모노레일사업 마져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표류하고있는 와중에 설악산 횡단케이블카 및 곤도라 설치 의도가 공론화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개발사업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환경단체와 환경관리 기관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모노레일사업마져 영리 목적 사업으로 인식, 지역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모노레일을 비롯한 케이블카 및 곤도라는 관광객이 다수이용하여 파괴되는 자연을 보존하여 주는 시설로서 가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직까지 환경단체 및 일부 중앙부처는 인공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으며,

○ 관광특구 및 주민여가지대 지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중앙 부처의 지원책과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 최근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국립공원내 대규모 행사의 전면 불허가 조치와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설악산의 " 세계 자연 유산 " 지정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 육성에 의한 국민여가지가 아니라 보존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대처하는 지역역량을 배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을 우선 추진시키면서 이를 계기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전략하에 설악산 횡단 케이블카 및 곤도라 설치 방안을 전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현재 " 설악관광특구 종합발전 계획 수립 "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5 월경 구체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서 면 답 변 서

자료번호		소 관	산 업 과	질문의원	일시: '95.9.21 성명: 김 강 수
------	--	-----	-------	------	---------------------------

☐ 질의내용

1. 김강수 의원이 질의한

- 속초시 대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대책중 산업과 소관인 첫번째의
- 대포동 소류지 이용 물리면적에서 생산되는 추곡을 전량수매토록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당시의 산업과장은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 ° 지금도 농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 °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 먼저 대포동 관내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질의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질의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 1. 금년 6.10일 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따라 전부시장 주제로 대포동 주민과 대담시
 - ° 대포영농회의 경작지 추곡수매는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 ° 전량인 1,000가마를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에 따라

가. 실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침출수 피해상황에 따라 요청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95.6.29일자로 통보한바 있으며,

2. 그리고 금년도 7.24일 시장 등·초도순방시 대포동 영농회장 오문순으로부터 동일 내용에 대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 '95.8.16일자로 오문순 영농회장에게로

- ° 수매량 배정은 속초시의 식부면적과 '94년도 배정량에 의하여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하며
- ° 정부로부터 추곡수매 계획이 시달된 후에야 자체 수매량 배정을 확정시킬수 있기 때문에 자체 형편에 따라 검토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수매물량 책정시에는 침출수 유출을 고려하여 지휘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을 실무부서에서도 건의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실무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이 가능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 추곡수매는 정부계획에 의한 수매물량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1. 현재로서는 수매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수매량이 일시에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 ° '94년의 경우 3차까지 배정이 됨에 따라 물량배정에 관하여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 실정이며

2. 향후 수매배정량과 수매방침이 확정된 후에야만 통보드린 바와같이 수매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며,

강원도와 농협, 그리고 자체적으로 요청량에 대하여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므로 지금의 현상태에서는 요청량에 대하여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속초시의 '94년도 배정량을 고려하여 볼때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없음을 현황표와 같음을 말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본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은 할 것 입니다.

'94. 추곡수매 현황

□ 수매실적

(단위 : 40kg/가마)

구분 동별	수매 농가	수 매 내 역				전체 %	요구시 조 %	중간 %	비 고
		배정	수매	등 위					
				1	2				
계	389	21,105	21,105	19,698	1,407	100	100	0	
교 동	9	450	450	433	17	2.1	2.1	0	
노 학	163	9,600	9,559	8,748	811	45.5	45.0	△ 0.5	
조 양	50	2,250	2,250	2,118	132	10.7	10.2	△ 0.5	
대 포	7	570	552	476	76	2.7	2.7	0	
도 문	99	5,295	5,344	5,132	212	25.1	24.6	△ 0.5	
설 악	17	780	790	753	37	3.7	3.6	△ 0.1	
장 사	44	2,160	2,160	2,038	122	10.2	9.8	△ 0.4	

※ 배정내용 : 1차:10,835, 2차:8,270, 3차:2,000가마

○: 대포동 주민 요구 사항

○ 대포동 소류지 물리면적 생산 추곡 전량수매 (추정:1,000가마)

※ 요구수용시 : 아래 "예"와 같이 타동의 물량에서 조정불가피

<예>

1. 노학동 : △ 100, 2. 조양동 : △ 100 3. 도문동 : △ 100

4. 장사동 : △ 100, 5. 설악동 : △ 30 6. 대포동 : + 430